

광주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

일시: 2010년 4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회 2010년 1차 회의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시민배심원제 문제점 고발 적절했다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교육에 관심 높는데
교육감 선거 너무 소홀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지난해 2009년 12월 제 3기 독자위원회 6차회의 이후 4개월만의 회의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시민으로서, 독자로서 광주일보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 부탁한다.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광주일보 창사 58주년이었다던 지난 4월20일자 1면에서는 '100년 신문으로 가는 광주일보 지역민과 함께 하는 4대사업'을 발표했다. 그 중 갈등은 풀고 지혜는 모으자는 '지역순환 순회 대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으로서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획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좋다고 본다. 심도있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회였으면 한다.

최근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가결돼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광주일보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적 보도로 하면서 지역 언론을 견인해 왔다. 노사 양쪽에서 형평있게 각각의 장단점을 잘 짚고 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보도를 잘했다. 또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류동훈(광주·전남 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관련기사가 많은데 광주일보의 경우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배심원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배심원들을 우리 지역민이 아닌 다른 지방 전문배심원을 데려온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일보가 문제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했어야 했다.

시장후보나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면해에는 많지만 기초의원들에 대한 보도는 적다. 지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기초의원인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들은 광주일보가 아니더라도 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광주보는 기초의원 보도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정보를 계속 제공했으면 한다.

▲김현석=류동훈 본부장이 잘 지적해줬다. 더불어 기초의원 보도도 적지만 교육의원·교육감 선거는 거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매우 관심이 높는데 이를 이끌어 갈 교육의원·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모숙(송은갤러리 관장)=최근 법정스님의 입적부터 금호 사태, 지방선거와 천안함 문제까지 사회 이슈기사가 1면에 계속 실리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다루다보니 관심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민주당 공천문제를 광주일보는 잘 짚어주고 있다. 하지만 대안 제시에서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고 본다. 4면의 지방선거 핫코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 그런데 형평성이 떨어진다. 후보별로 언급되는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광주일보 경제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취약하다. 재테크 등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광주일보는 이 점에서 미흡하다. 경제뉴스는 많지만 정보는 부족하다. 주부나 봉급자들에게 제테크 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해달라.

▲임선숙(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지난 4월14일자 1면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 망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공감할 기사였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비판을 가열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지적한 기사라고 본다.

범죄보도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다. 유죄를 확정하기 전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익명보도는 필수다. 그런데 광주일보는 이를 깨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은 물론 사는 동네와 나이까지 적으면 주위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된다. 익명보도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주면 한다.

▲문상필(사)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올해가 5·18민중항쟁 30주년인데 광주일보에서도 많은 기획기사는 물론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한다. 특히 5·18정신을 많이 강조하는데 광주는 여전히 소외되지 못하고 가장 보수적인 곳이다. 이런 부분 고칠 수 있게 광주일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은 문제가 많다. 사회복지가 곧 재벌이 되는 구조다. 광주의 사회복지를 바로서게끔 광주일보에서 많이 다루었으면 한다.

▲조미옥(나주 봉황중학교 교사)=올해부터 교원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는 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광주일보 사실에서 객관적으로 잘 다루었다. 앞으로 더 심도있고 기획력 있게 접근했으면 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생들에게 광주일보 신문을 교육에 하는데 비판적인 기사 비중을 조금 줄이고 미담 기사 비중을 늘려줬으면 한다. 아이들은 곧 미래의 독자만큼 긍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길러줬으면 한다.

▲이철갑(조선대 의과대학 교수)=광주일보는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만큼 여론을 이끌고 가는 힘이 크다. 그런데 지방선거 보도의 경우 해설 기사가 미흡하다. 특히 각 후보마다 쟁점을 부각시켜달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만큼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많이 소개해달라.

최근 1면에 보도된 내용 중 대구지역의 의원들은 지방보조금을 가져오기 위해 TF팀까지 짜서 노력하는데 광주지역 의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사 매우 좋았다. 의원들이 지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계속 강조해달라.

▲안재오(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광주일보의 스포츠 지면은 지역 내 소식을 많이 다루는 등 잘 구성돼 있다. 특히 주말판에서 학원 스포츠 탐방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보도 태도라고 본다. 학원스포츠가 매우 중요한 만큼 계속 보도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앞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많은데 단발성 기사만 나온다. U-대회나 F1그랑프리 등에 대해 자주 보도하면서 붐을 일으켜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집기사를 늘려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투자 붐도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

▲이병우(보해양조 홍보이사)=나로호 2차 발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기사가 너무 적다. 지역 내 중요 뉴스인만큼 많은 기사 부탁한다.

20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광주에 와서 크게 놀란 점은 무질서한 교통의식이다. 지나가다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에까지 불법주차차를 한다. 너무 놀랐다. 문화수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시민의식 개선에 대해 광주일보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

신문의 품질은 좋은 칼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광주일보의 칼럼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글이 많다. 그것도 관 홍보 위주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칼럼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질리=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상필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



사회복지 바로 서게끔
더욱 많은 지면 할애를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매주 광주일보 신문 교육
미담기사 더 늘려줬으면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지방선거 해설기사 미흡
후보 쟁점 부각시켜달라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U-대회·F1그랑프리
붐 조성 앞장서 주길

이병우 (보해양조 홍보이사)



대부분 관홍보 공무원 글
칼럼 필자 다양화 해야

류동훈 (광주·전남 행복발전소 문화사업 본부장)



민주당 공천 문제 보도
대안 제시 없어 아쉬워

이모숙 (송은갤러리 관장)



4면 지방선거 핫코너
후보별 형평성 떨어져

임선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익명보도 원칙 준수 등
범죄보도 더욱 신중하게

영 / 학 / 안 / 내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

메가박스

배관	친정엄마 (연세)	최고급관
2관	허트로커(15세)/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	
3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4관	베스트셀러 (15세)	
5관	(3D)타이탄(12세)/블라인드사이드(12세)	
6관	일라이(15세)/바운티헌터(15세)	
7관	릭에스-영웅의탄생(15세)	
8관	(3D)타이탄(12세)/친정엄마(연세)	
9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	
9관	베스트셀러 (15세)	

• 호날두차타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입국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현대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아이언맨 (12세)
2관	일라이(15세)/허트로커 (15세)
3관	아이언맨 (12세)
4관	아이언맨 (12세)
5관	베스트셀러 (15세)/반가운 살인자 (15세)
6관	(3D)타이탄 (12세)/G-포스(3D)더빙
7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 (15세)
8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 (15세)
9관	친정엄마 (12세)
10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 (15세)

3D디지탈 상영!
4/1(목) 상무원, 하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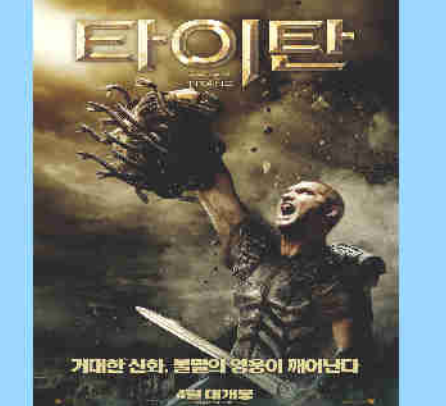


1588-7941 상무원점 열방-(1면 or 2면)→0면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세)/롤링 인 리브(15세)
2관	그린 존(15세)
3관	솔로몬 케인 (18세)
4관	의형제 (15세)
5관	비밀에 (18세)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연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타이탄 (12세)
9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폭풍전야(18세)

• 5000대 범용 주차권(3시간/무선) • 355 대일 심야
• 이틀 통시사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순회용 289-5767 • 해미 본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hema.co.kr / 1588-9120
전대무선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아이언맨2 (12세)
2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친정엄마 (연세)
3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
4관	블라인드사이드 (12세)
5관	릭에스-영웅의탄생 (15세)
6관	허트로커 (15세)
7관	베스트셀러 (15세)/타이탄 (12세)
8관	아이언맨2 (12세)
9관	아이언맨2 (12세)

씨너스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시사 할인혜택



씨너스전대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이언맨2 (12세)
2관	아이언맨2 (12세)
3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
4관	구르물 버서남 달쳐럼(15세)
5관	타이탄 (12세)/친정엄마 (연세)
6관	일라이 (15세)/베스트셀러 (15세)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hema.com/www.jellochema.co.kr •
홍성로 3기 VARS 전화예매 ☎ 227-1960